

2018 청소년축제 ... "네 끼를 펼쳐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광주일보 주최 '2018 청소년축제'가 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눔광장에서 열렸다. 댄스 경연에 참가한 'RUN THE WAACK(수피아여고 외)' 팀이 화려한 몸놀림으로 울동을 펼치고 있다. 총 17개 팀이 참가한 이번 축제에서 교육부장관상은 실용음악부문에 플러그인 걸스(동신여고 외), 댄스부문에는 District 51(동일미래과학고 외)이 수상했다. ▶관련기사 7·18·2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태풍 뿌라삐룬 내일 오전 전남 상륙

광주·전남 시간당 30mm 이상 폭우 쏟아질 듯

제7호 태풍 뿌라삐룬(Prapiroon·신의 비)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광주·전남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2년 여름 잇따라 광주·전남을 강타한 태풍 카눈, 볼라벤, 덴빈, 산바 이후 6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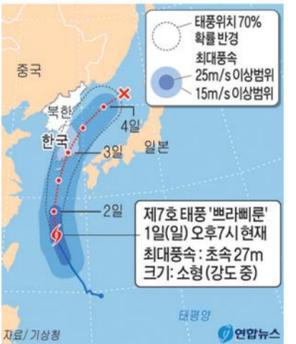
〈관련기사 6면〉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뿌라삐룬은 2일 밤부터 국내에 북상해 3일 오전 무렵 여수 지역에 상륙한다. 태풍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2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로 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중심 기압 985hPa에 최대풍속 27m/s, 강풍 반경 250km로 '중 소형' 급이다.

태풍 뿌라삐룬이 당초 서귀포를 지나 목포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과 달리 태풍이 동쪽으로 경로를 바꾸면서 여수를 거쳐 울릉도와 독도 부근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3일까지 광주·전남에 100~250mm의 비가 내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3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태풍 '뿌라삐룬' 예상 진로



이후 태풍은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동해상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점차 약해져 4일 오후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내린 장맛비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태풍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 등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방정부로 가는 길... 민선 7기 출범

광주·전남 단체장들 태풍 복상에 민방위복 입고 첫 업무 강해지는 권한 속 일자리 창출·인구 절벽 등 해결 과제

기대와 우려 속에 1일 민선 7기가 출범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은 2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축하 꽃다발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선 7기 광주시장, 전남지사 등 단체장들의 권한은 과거보다 더 강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업무 이

관, 위임 등을 통해 '단체 자치'가 인정되면서 기존 2할 자치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지방정부로 격상될 수도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을 거쳐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의 신속한 모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 차례의 시장선거를 치르며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기대가 높다. 김 지사 역시 지방과 중앙을 두루 섭렵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을 통해 전남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전망이다.

모두 초선인 임택·서대석·김병내·문인·김삼호 등 5개 구청장은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선보일 각오이며, 전남의 22개 시장·군수

역시 잘 사는 고향을 위한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서 있는 광주·전남에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다. 개발이 더디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가 쌓이지 못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지역 간 마찰·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줘야 하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고 있다.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수축산업의 부가가치는 낮고, 자동차·가전·조선·철강 등 기간산업은 미래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미래산업도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현안들도 여전히 민선 7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여수 경도관광단지 1조원 투자, 군 공항 이전 등은 지역 내, 지역 간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

선 6기에 이어 상생의 기초는 유지하고 있지만,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의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은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지역주민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면서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도 벌여야 한다. 민선 7기 단체장의 리더십과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미다.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광주·전남이 별개의 지자체가 아니라 대도시권으로 경제, 문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중앙정부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 52시간 근무시대 열렸다

'워라밸' 노동자 삶 큰 변화 위한 처벌 제도기간 6개월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는 양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동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동 603(소동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팔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